

일주문



인양교도소 재소자 위문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인양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2500명을 위문하고 150명에게 수계했다.



군중교구 현충원 참배
정우 조계종 군중교구장 스님은 6월 5일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을 맞아 순직 군법사를 비롯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참배행사를 개최했다.



보리수새싹학교 환계식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5월 26일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 종료에 따른 환계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의료원 발전기금 쾌척
학명 하남 성불사 주지 스님은 5월 15일 동국대의료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다.



공불련, 마음치유콘서트 성료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5월 21일 세종시 청사 대강당에서 '해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콘서트'를 개최했다.



'행복한 인생...' 주세로 특강
김홍신 작가는 5월 26일 동국대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행복한 인생을 위한 희망메시지'에 초청 강사로 특강을 진행했다.



불교 사회경제제 연구교육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6월 24~26일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경제, 불교와 만나다' 연구교육을 진행했다.

<인사> 동국대 의료원 인사

- 동국대학교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DM 통계연구소장 태석기 △부의료원장 정지천 △전략경영실장 임근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일산불교병원장 오민규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정지천

<바로 잡습니다>

제1046호 7면에 실린 원효종 원효 스님 1329주기 추모대제 기사 중 총무원장 우석 스님의 법명이 주석 스님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동문화합, 학교발전 최우선 과제로”

전영화 제24대 동국대 총동창회장
5월 28일 정기총회서 선출



“동문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화합을 최우선으로 전임 회장단까지 끌어안고, 후배 동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동문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양분되었던 동국대 총동창회가 신입 동창회장으로 전영화 회장(경찰행정 65학번·사진)을 선출하고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총동창회(제23대 회장 원용선)는 5월 28일 그랜드 엠버서더호텔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입 동창회장으로 전영화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먼저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172명의 동창회원이 참석해 성원을 이켰다. 당초 총동창회장 선거는 정용학 회장과 함께 김재주 후보(정치외교학과 61학번)가 입후보 했으나 이사회 정견 발표 이후 사퇴해 단일후보 무투표로 진행됐다. 전영화 제24대 동창회장(경찰행정 65학번)은 국무원 안보단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비상인연구위원, 동국대 총학생회장,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울산대 경찰학과 전임교수, 경찰행정학과 동문회장 및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영화 동창회장은 “어려운 시기 동창회장을 맡겨 준 것은 동창들이 주인이 되어 빠르게 동창회를 세우라는 것”이라며 화합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 신입동창회장은 “동창회 반목 중 총장 선출이 이뤄져 안타까웠다. 학교발전을 위해 힘껏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 동창회장은 가장 먼저 화합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 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왜 23대 이후 24,25,26대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24대 동창회가 됐는지 안타까워하고 있다. 24대 동창회에 연연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대통합의 동문회로 모두를 끌어안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동창회장을 놓고 대처구도에 있던 박종윤, 송석환 회장에 대한 치사와 함께 총동창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겠

다”고 말해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임기 중 총동창회장 선출 문제가 불거진다면 선거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영화 동창회장은 먼저 동창회 문호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전 동창회장은 “동창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동창회에 지도자급 동문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동창회장으로서의 첫번째 소임”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동창회는 분명히 변화하며 튼튼한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체질 개선과 함께 전통과 희망이 후배 동문들에게 개선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물고 문턱이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은 동국장학재단 정산문제, 동창회관 건립의 지속적인 진행, 동창들의 우의 증진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108주년 기념관에 들어설 동창회관에 대한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사회는 이에 앞서 재판부로부터 위법조항으로 지적 받은 회칙 중 발전기금 6억원 납부 조항을 개정해 정회원 자격이며 5년간 3회 이상 회비 납부, 공탁금 3000만원, 재직임원 2000명 가운데 50명 동의서명 등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선거에서는 먼저 23대 임원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졌다. 법원의 23대 이후 6억 납부조항에 따른 동창회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덕현 기자

20여 년 문화포교에 앞장선 공로

성담 스님, 6월 7일 제3회 심우문화상 수상

금산 효심사 주지 성담 스님(사진)이 제3회 심우문화상을 수상한다. 심우당문화재단(이사장 김맹석)은 6월 7일 금산 효심사에서 김맹석 심우문화상 설립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심우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심우문화상은 학교법인 형석학원과 금강학원을 설립한 심우당 김맹석 이사장이 교육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 또는 단체를 선정 시상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제정된 상이다. 심우당문화재단은 수상 사유에 대해 “불교의 새로운 의식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법회는 물론 방송과 저술 활동을 통해 23년 동안 전법과 자비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심우당문화재단은 “BBS불교방송과 불교TV에 127회 출연하는 한편 '행복 119' 등 8권의 저술 활동,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또 국경, 민족, 종교, 인종을 초월한 불자들을 양성하고자 명품국산 건립하고 국제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작지만 강한 불교학 연구 산실로”

개소 10주년 맞은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

“한국불교학이 일본과 중국에 미친 영향부터 한국학과 인문학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소장학자들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연구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불교학의 지평을 넓혀온 한국불교사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학계에서 대학의 교직원과 종단, 사찰의 후원을 받는 연구소 외에 독립적인 연구소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독립 연구소로 2005년 문을 연 이후 매년 3회 세미나를 열고, 강의 기행 등을 진행해왔다. 또 <문학/사학/철학>, <한국불교사연구> 등을 펴내 불교학 저변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장(동국대 교수·사진)은 “불교사의 폭을 인문학으로 넓히고 보다 상위범주에서 불교학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소를 출범했다”며 “기존 학계에서 놓쳐왔던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집중세미나와 함께 강의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기행은 1년에 2차례 씩 원효 스님, 금강경 등을 주제로 사찰뿐만 아니라 사지, 서원 등을 기행하며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총 27회 진행됐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향후 인도와 일본, 중국 등에 미친 한국불교의 영향 등을 조명하고 지금까지 나온 학술적 성과를 총서로도 펴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부산 기장 장안사, 해동전 상량식



천년 고찰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10년 종합정비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가 두 번째 불사인 해동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5월 22일 봉행한 해동전 상량식은 정여 스님(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장안사 회주 정현 스님(가야사 주지), 혜성 스님(해광사 주지), 보혜 스님(정량사 주지)의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해동전 불사를 마치면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 포교의 장소로 널리 회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량식에 이어 장안사는 종각불사 회향식을 거행했다. 참석한 모든 동참자들은 직접 범종을 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 하성미 기자

법안정사, 중앙승가대 2천만원 전달



서울 법안정사(주지 도업)는 5월 21일 중앙승가대를 방문해 승가교육불사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총장 원행스님과 후원의 사무처장 초우스님 등은 중앙승가대학과 학인 스님들을 위해 보시행을 펼친 법안정사 신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100세 스님, 동국대서 생일잔치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5월 29일 교내 백성관 컨벤션홀에서 지난 3월 명예학장으로 위촉된 신광사 주지 선도 스님의 100세 생일잔치를 개최했다. 선도 스님은 2002년 전제산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생일잔치에는 스님의 가족과 문도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경제회복 기원대법회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에서는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경제회복을 기원하는 법석에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일본, 중국 등에서 크게 포교하고 계시는 세계적인 고승들을 초청하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경제회복 기원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불사가 원만성취 되시옵기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불기2559(2015)년 5월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이사장 청운 박청운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일불신문사 사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상임이사 이봉 서병열

(일불신문사 발행인 겸 회장, 민주평통고양시협의회 지회장)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법인사무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청운사) 전화 : (02)3401-9325, (02)777-0959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 기념대법회가 끝난 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과 임원진 기념 촬영

- 일시 : 불기2559(2015)년 6월 11일 (음력4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서울 을지로입구)
※ 오전 10시까지 입장 요망
● 주최, 주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